금주의 법구–〈경구〉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의지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29일)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날, 새로운 궤적의 시작

이토록 삶과 죽음을 시시각각 목도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온 과보일까.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보다도 위태로운 오늘, 그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품는다. 새해를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임인년, 유무정의 만상이 새로운 궤적을 시작한다. 국보로 거듭난 정암사 수마노탑 위로 어제의 별들은 지나갔다. 별들이 어둠을 지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급한 이 시대를 건너가야 한다. 새로운 궤적을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2020년 6월 25일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22호로 승격 지정됐다.

사진정보 / Canon EOS 5D Mark Ⅳ, Lens 24mm, F 5.6 S 30초×160cut(1시간 30분 노출 · Photoshop CS6)

정선 정암사=박재완 기자

불교 안팎 선거 잇따라 각계 · 종단 도약 예고

2022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한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전국지방선거에 이어, 장자종단 조계종 총무원장 · 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해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사건으로 적잖은 상처를 받았던 불교계가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도 마련될 예정이다. 각 종단과 불교계 신행단체 등이 전환점을 맞아 지난 역사를 딛고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인년 한해, 주목할만한 불교계 이슈들을 #선거, #비전, #변화 세 가지 키워드로 추렸다. 〈편집자주〉

선거 2022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3월 9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고,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등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불교계로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신축년 막바지 그간의 발생한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에 따른 불교계 규탄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존 · 전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 밝은 지도자를 가려내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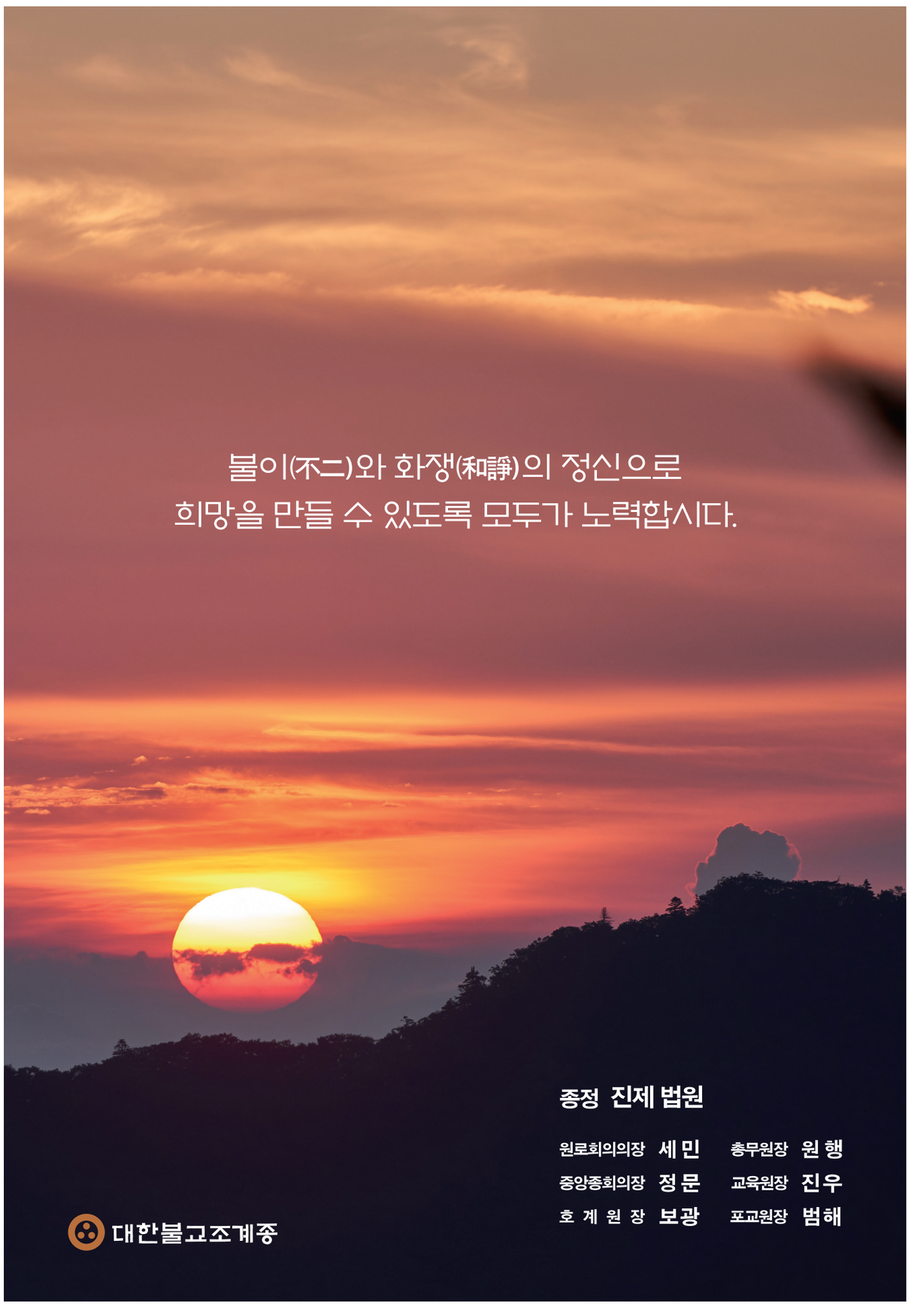
대국민 선거 이후에는 곧이어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변화를 이끌 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일 진행되며 10월 13일에는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조계종 일부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前주지 덕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선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제11교구본사 불국사(10월 임기만료), 제2교구본사 용주사(8월 임기만료), 제8교구본사 직지사(2023년 1월 임기만료)도 새 주지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오랜 혼란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도 종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제20대 총무원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새 총무원장 체제로의 안착은 그동안 추락한 법화종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발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일구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다.

비전 임인년은 불교계 각 종단과 신행 · 포교 · 사회단체들이 전환점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계종은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는다.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종단 역사와 정체성을 되짚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일구는 토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올 4월경 예정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 기록물 제작 예산 등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진각종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등 종조 선양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로 2년간 열리지 못한 회당문화축제를 종조탄생 120주년에 맞춰, 6월 창교절 무렵 울릉도에서 봉행할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3면에 계속〉



2022년 신년특집호 A · B · C 섹션 72면 발행

신년 특집 A8 · 9 · 12 · 13
종교편향 반세기

신년 불교동화 A15

DIGITAL4.0 BUDDHISM B1 · 2 · 3 · 7 · 8 · 9

불교와 호랑이 B27


데스크 초대석 A5
성관 스님
보현선원 회주


특별인터뷰 C3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리더에게 청하다 C1~2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

K-불교 글로벌 포교사들 C4~7

원보 스님

장줄리앙 푸스

한스욕 에플레

마우리찌오 리오또